

영어 1등급 ‘3.11%’… 국어·영어 고득점자가 상위권 주도

〈역대 최저 비율〉

2026 수능 실재점 결과

국어 1등급 4.67%, 수학 4.62% 집계
국어, 전년比 표준점수 최고점 상승
사회·과학 고득점자 수 크게 엇갈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실재점 결과, 영어 1등급 비율이 3.11%로 1994년 수능 도입 이후 전 과목을 통틀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가 사상 최대 불수능을 기록하고 국어도 불수능 수준의 난도를 보이면서 상위권 경쟁 구도를 뒤흔드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수능에서 국어는 표준점수 최고점 147점, 1등급 비율 4.67% (2만2935명), 수학은 표준점수 최고점 139점, 1등급 비율 4.62% (2만1797명)으로 집계됐다. 절대평가영어는 1등급 비율이 3.11% (1만5154명)에 그쳐 상대평가 과목보다 더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수능의 특징은 ▲영어 절대평가 도입 이후 최저 1등급 비율 ▲국어·수학 표준점수 최고점 격차 8점 ▲국어·수학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뤄졌던 지난 11월 13일 서울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두 1등급 구간 내 점수 차 확대 등이다.

특히 국어는 지난해보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크게 상승하며 상위권 변별력의 중심축으로 떠올랐다. 표준점수는 전체 수험생의 점수 분포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지표로, 고득점자가 적을수록 최고점이 높아지는 구조다. 즉 표준점수 최고점 상승은 시험이 그만큼 어려웠고 상위권을 가르는 변별력이 강해졌다는 뜻이다. 반면 수학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하

락해 두 과목 간 격차가 전년(1점 차)보다 대폭 커졌다.

영어는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한 변별력을 보이면서 상위권 당락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으로 부상했다. 그 결과, 수학 고득점자가 상위권을 주도하던 기존 구조가 흔들리고, 국어와 영어를 모두 높은 수준으로 해결한 이른바 ‘국·영 우위형’ 수험생이 최상위권에서 뚜렷한 우세를 보이는 양상이 나타났다.

국어와 수학의 1등급 구간 내 점수 차도 동반 확대됐다. 국어는 14점(전년 8점), 수학은 11점(전년 9점) 차이가 발생해 두 과목 모두 변별력이 강화됐다.

표준점수 최고점자 수 역시 크게 줄었다. 국어 최고점자는 261명으로 전년(1055명) 대비 75.3% 감소했고, 수학 최고점자는 780명으로 전년(1522명) 대비 48.8% 줄었다.

탐구 영역에서는 사회·과학 간 흐름이 극단적으로 엇갈렸다. 사회탐구(사탐) 2등급 이내 인원은 7만9611명으로 전년 대비 30.0% 증가한 반면, 과학탐구(과탐)는 3만7308명으로 전년 대비 25.3% 감소했다.

사탐은 사회문화(+48.0%), 생활과윤리(+29.0%), 윤리와사상(+29.8%) 등에서 ‘2등급 이내 고득점자 수’가 크게 늘었고, 과탐은 지구과학1(-29.3%), 생명과학1(-17.3%), 화학1(-46.7%) 등 주요 과목에서 고득점자가 일제히 줄었다.

표준점수 최고점도 과목별 편차가 뚜렷했다. 사탐은 세계지리(73점)가 가장 높고 정치와법(67점)이 가장 낮아 6점 차를 보였으며, 과탐도 생명과학1(74점)과

물리2·지구과학1(68점) 간 6점 차가 발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사탐 선택자 증가와 과목 간 점수 차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이른바 ‘사탐란’ 현상이 정시 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지목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절대평가 영어의 난도 상승이 수시·정시 모두에 심각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학별 영어 반영 방식에 따른 유·불리가 급격히 달라지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임 대표이사는 “국어·수학 난이도 격차 역시 ‘수학은 잘 봤지만 국어를 못 본 학생’의 정시 전략에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사탐 선택 증가·과탐 감소로 문·이과 교차지원도 변수로 떠올랐다. 대학별 탐구 변환표준점수 적용 방식에 따라 지원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올해 정시는 그 어느 때보다 예측이 어려운 입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들은 탐구 변환표준점수 적용 기준을 조속히 발표해야 수험생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교육청, IB 학교 운영성과 공유

〈국제바칼로레아〉

내일 ‘2025 IB 콘퍼런스’ 열어
서울교육 지향점 실천방안 모색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6일 오후 1시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2025 서울 국제바칼로레아(IB)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미래 역량 중심 교육과정, 자기 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탐구형 수업, 생각하고 표현하는 힘을 키우는 서·논술형 평가 체제 도입 등 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서울형 수업·평가 모델 체제를 구축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IB 프로그램을 도입해 2025년 현재 총 114교의 IB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IB 학교 운영 성과와 공유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서울교

육의 지향점에 대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IB 교육에 관심이 있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과 교육전문직 등 6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구성된다. 1부 ‘미래 서울교육의 지향점’에서는 정근식 교육감의 개회 인사를 시작으로, 한국 교육의 현안과 공교육의 미래 방향을 주제로 박형주 전 아주대학교 총장의 기조강연이 진행된다.

2부 세션 1 ‘미래역량을 키우는 학교’에서는 초·중·고 학교급별 강의로 운영되며, 학습하는 조직으로 성장하는 교사, IB 평가방법 및 사례, 협력적 학교문화 조성 방법 등 IB 교육에 대한 심층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2부 세션 2의 ‘미래 서울학생역량, 교실에서 시작하다’에서는 초·중·고별 총

24개의 강의실에서 수업 실천 사례를 발표한다. 초등학교 과정은 개념 중심 수업의 실천, 평생학습자로서의 주도적 성장 등 11개의 주제로 수업 사례를 발표한다. 또한 중학교는 교과군 수업 사례, 학습접근방법(ATL)의 수업 적용 등 7개 주제를, 고등학교는 탐구 수업 디자인 방법, IB 코디네이터의 역할 등 6개 주제의 수업 사례를 발표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IB 콘퍼런스는 교사가 성장하는 교육 전문가이자 탐구의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되새기고, 협력적 학교문화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라며 “경쟁에서 협력으로, 성취에서 성장으로 나아가는 학생 미래역량 중심의 서울형 수업·평가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운지구를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뚝, ‘종묘~남산 녹지축’ 세운 재개발 의지

오세훈, 세운지구 찾아 정비사업 논의
녹지·활력 미래공간 전환 목표 제시

오세훈 서울시장(4일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세운지구를 찾아 장기간 정체된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요구사항을 듣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세운 재개발은 서울시가 민간 참여를 통해 도심에 대규모 녹지를 확보하려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핵심 사업과 직결돼 있다.

세운지구는 해당 전략에 따라 핵심상가군을 공원화하고 민간부지 내 개방형 녹지를 조성해 약 13.6만㎡ 규모의 도심 녹지를 확보하게 된다. 시는 북악산부터 종묘, 남산까지 이어지는 ‘남북 녹지축’이 완성될 경우 녹지 확충은 물론 도심 경쟁력 역시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종묘 일대의 역사 경관을 회복하고 시민에게 새로운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밀집한 세운지구의 안전 취약성을 해소해 정체·낙후 이미지를 ‘녹지·활력’이 넘치는 미래공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날 열린 주민 간담회는 노후 지역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비사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SH공사의 사업 현황 브리핑에 이어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생활 불편, 안전 우려, 사업 지연에 따른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했다.

세운상가 일대는 1990년대 ‘도심재개발 기본계획’과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이미 상가를 철거하고 종묘~남산을 잇는 녹지 조성을 목표로 삼은 바 있다. 수십 년이 지난 현재 세운지구의 노후도는 심각한 수준으로,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97%, 목조 건물 비율이 57%에 달해 화재 등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6m 미만 도로가 65%를 차지하는 등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환경도 주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

주민 목소리를 경청한 오 시장은 “노후 도심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개발 논리를 떠나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비사업의 재추진이 절실하다는 데 동의했다.

서울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의 병목지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추진 일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세운지구 노후 인프라 개선 ▲안전 확보 ▲개방형 녹지 조성 등 핵심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사업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녹지가 턱없이 부족한 서울에 종묘~남산 녹지축이 생기면 세계 도시계획사에 획기적 성공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녹지생태도심을 통한 도시재창조는 녹지 갈등이 높은 서울시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라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양근대교 확장공사’ 추진 속도

김동연 지사 ‘민생경제 현장투어’
“내년 2월 착공 목표… 양평군과 협의”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가 양평 지역 교통 문제를 개선할 ‘양근대교 확장공사’에 대해 내년 2월 착공을 목표로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지사는 4일 20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 현장으로 양평군을 찾았다.

첫 번째 투어 일정으로 양평도서관에서 열린 국지도 98호선 양근대교 확장공사 주민설명회를 찾은 김 지사는 “경기도 전역을 다니면서 ‘달라가는 곳마다 달라



진다’라는 구호로 달리고 있다. 가는 곳마다 가장 큰 현안 문제가 무엇일까. 늘 고민하는데 오늘은 양근대교”라며 “차질없이 준비해 내년 2월에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양평군하고 정말 긴밀하게 협의했다. 들어가는 예산도 이미 정부, 양평군하고 합의를 봤다. 양평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지도 98호선 양근대교 확장공사’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서 양평읍 양근리를 잇는 양근대교 기존 2차로 1km 구간을 폭 약 20m 4차로로 확장하는 내용

이다. 도는 2016년 ‘제4차 국지도 5개년 계획(국토교통부)’에 반영 후 주요 행정절차를 이행했으며 타당성 재검토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9월 공사를 발주했다. 내년 2월 착공 및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일대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등이 남양평 교차로(IC)를 통해 양근대교와 연계돼 특히 주말이면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월 5일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을 통해 경기도 교통정책을 소개하면서 “교통은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민생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경기도는 김 지사의 ‘교통 민생’ 해결 노력이 양평에서도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